

예술품도서관(아르토텍)

노 문 자
숭의여전 도서관학과 교수

〈차 례〉

- | | |
|-------------|---------------------|
| 1. 서론 | 4.4 보관 |
| 2. 개념 | 4.5 이용 |
| 3. 목적 | 4.5.1 이용자그룹과 그 이용분석 |
| 4. 운영 | 4.5.2 이용자연구 |
| 4.1 운영체제 | 4.6 홍보정책 |
| 4.2 소장품개발정책 | 4.7 인력 |
| 4.3 정리 | 5. 결론 |

1. 서론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떠나면서 미술활동에서도 손을 뗀다. 학교교육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기능적인 것이 돋보이는 형식의 교육이어서 개인의 자질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생활속에서는 많은 일상품을 스스로 만들고 꾸미던 것도 이제는 거의 상품화되어 있어서 값싸고 편리하게 사서 사용하므로 거기에서 자기나름의 재능이나 의식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처럼 미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서 감상하는 자세에 거리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은 항상 우리생활의 바탕이며 우리의 됴됨이 그 자체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민족예술의 표현이다. 조선백자를 통해서 그 당시 우리민족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백자는 바로 우리민족의 근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스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의 외면적인 가치와는 달리 내면적인 가치를 발견하면서 각자가 창조하는, 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것부터 배워야 한다. 현대의 규격화된 생활에서 우리의 독자성을 찾는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미술에 대한 안목을 바르게 갖추는것 또한 중요하다. "pictures for the home"¹⁾이라는 표어아래 아르토텍에서는 "생활

1) Glencross, Alan: "Pictures for the home-Der Bildverleih in Greenwich" Über die Kunstleihe und Bildereien. Deutsche Bibliotheksinstitut(DBI). Berlin. 1982. p.86.

속의 미술”을 목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예술품을 도서처럼 집에까지 대여해 줌으로서 미술감상 능력을 개발, 자극시켜 선진국민으로서 문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청소년, 노인, 부녀자, 신체장애자,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고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이로서 각자의 재 창조력을 활성화 하게 돕고, 또²⁾ “문학, 예술을 감상하고, 고상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양을 쌓게 하여 각자의 정신순화를 통한 사회정화를 이룬다.” 물론 문화활동을 전개시킨다는 이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변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지혜와 가치의 총체여서 도서관만이 또는 아르토텍만이 책임을 지는것은 아니지만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한 필수적인 장치(social apparatus)로서 선진문화의 향상을 위해 책임을 할 수 있다. 미술에 대한 바른 안목, 예술품의 감상능력을 개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곳도 통례의 관념으로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박물관이지만 아르토텍이라는 공공미술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술품대여서비스를 통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술품을 도서처럼 대여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 예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주어야한다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도서관의 소장자료에서도³⁾ 도서이외의 모든자료라는 비도서자료, 또는 특수자료(non book material, non book media, audio visual media)라는 카테고리에서도 약소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미술품들이 우리에게 생소한 아르토텍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조향을 장식하는것을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봉사되고 있는 경위를 유럽아르토텍의 운영을 통해서 알아보고자한다. 또 예술가의 복합적인 촉진제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예술품대여는 공공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예를들면 음악도서관 처럼, 으로서 도서관 서비스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여론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외국의 사례를 통한 정보전달의 부족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물관과 도서관과의 중앙위치, 평생교육과 학교교육과의 중앙위치등으로 인하여 예술품대여서비스는 애매하게도 서로 서비스의 소속위치가 불확실해져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위함이 본고의 목적이다.

2. 개념

예술품이 도서관의 소장품이었던것은 도서관사적인 측면에서 볼때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재 유럽 도처에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바로크양식의 도서관 건물 조각품들, 벽화는 당시 위정자들의 권력과시를 위한 전시효과를 목적으로 진열되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예술품과는 목적, 기능면에서 다른점은 재언급 할 필요가 없다. 앵글색슨족은⁴⁾ 아르토텍을

2) 한국도서관기준. 기준분과위원회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p.14.

3) 도서관용어집. 도서관협회편. 서울. 1966. 9. 59.

4) Dietze, Horst: "Bildereien, Entwicklung, Aufbau, Arbeitsweise" Über Kunstleih un Bildereien. DBI. Berlin. 1982. p.31.

picture(art) lending(loan, rental) scheme or service, 스칸디나비아에서는 Pinakotek, Bildotek, Artotek, 네델란드나 벨지움에서는 artotek, 불어권에서는 galerie pret'd'oeuvres d'art 또는 iconotheque, pinokothèque, artothèque, 독일어권에서는 Kunstverleih, Bilderei, Artothek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모든 언어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artothek은 art와 thek⁵⁾의 합성어이며 thek은 라틴어의 teca가 그 어원이며 도서관을 의미하는 불어의 Bibliothéque, 스페인, 이태리어의 Biblioteca, 독일어의 Bibliothek 등에서 처럼 접미어로 사용된다.

아르토텍에 대한 문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흔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아르토텍의 발달사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흔히 미술품대여를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이론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유럽에 비해 영리목적으로 유료예술품대여사가 많은 미국에서는 프라그마티즘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된다.⁶⁾ 지금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예술품대여의 개념은 20세기의 역사와 같이 발전했으나 발전도중 몇차례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거의 잊혀졌다. 금세기 미국에서 시작하여 도서관을 통해 예술품대여가 시작된것은 1945년 이후이다. 유럽에서는 이르토텍에 대한 시도가 1900년 전에도 있었으나 모두 좌절되고 미국다음으로 시작되나 미국에서는 도서관의 봉사활동 영역으로라기보다는 영리목적면에서 혹은 박물관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도 극히 드물다. 영국에서는 대전전에도까지도 예술품대여가 실시될 정도였었다.

각 나라별로 이르토텍의 설립시기를 살펴보면 네델란드에서는 예술인협회의 주최로 1955년에, 스칸디나비아는 도서관의 서비스범위로 스웨덴이 1954년, 노르웨이가 1958년, 독일에서는 1968년에 시작됐다. 50~60년대 후반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물로 도서 뿐만이 아니라 특수자료, 시청각자료의 위치가 확고해짐에 따라 예술품대여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된점도 아르토텍의 발전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아르토텍 설립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종합해보면 첫째, 정치적인 안정에서 오는 경제적인 여유와 더불어 사회환경에따라 인간의 의식구조가 고도화되어지면서 예술을 지향하는 추이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결과이다. 둘째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볼때 미술품이란 예술가들이 창작해낸 자신들을 위한 창조성의 결정체이지만 이 결과가 결과로서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처음엔 소수그룹에, 나중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자각에서였다고 본다. 그래서 아르토텍은 이용자와 예술가간의 예술품 교량역할을 함으로써 예술의 보급에 이바지한다.

5) thek이란 본래 유럽에서 폐가제도서관의 상징처럼 사서와 이용자사이의 한계선 즉 대출대를 의미해서 Artothek하면 현대도서관의 개가제시스템과 역행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독일어의 Apothek(약국)은 약사와 고객간의 선, Hypothek(권업은행)은 고객과 행원간의 선, 요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Discothek은 본래 주인이 손님으로부터 신청곡을 받아 들려주는 주인과 고객간의 선이며 음악도서관의 전신이기도 하다.

6) Dietze, Horst, op.cit., p.21.

3. 목 적

미술품을 오페라나 연극, 극장의 자석권 또는 정기간행물처럼 주문하는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또 왜 예술품은 월부로 구입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다른상품처럼 교환할 수 없는가? 도서관에서 도서, 시청각자료처럼 그림들도 대출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1951년 뉴욕의 Museum of Modern Art 에서 Art Lending Service 를 시작했을 당시 이 봉사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였다.⁷⁾ 현대예술의 이해와 더불어 예술품의 보급, 즉 예술의 대중화가 급선무였다. 지금은 과거 초기자본주의식의 예술창작조건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시기를 지나서 반대로 예술가의 지위도 향상되고 또 예술품도 상품으로서 그 유통과정이 순조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아직도 한정된 계층의 소유물로 인식되고있다. 대중과 예술가와의 거리감을 줄이는데도 문제의식에 속한다. 미술품은 우리의 삶을 보다 값지게 하는 힘이며, 이 힘이 과거처럼 일부층에게만 국한될 수 만은 없는, 모든 대중이 골고루 누려야 하는 자산이다. 이 자산이 은의상태에서 해방되어 대중이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우리는 지하철시대를 맞이해서 지하철의 간이서점과 전시회를 통한 지하철공간문화의 형성은 전 국민의 문화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해 보람된 일이 아닐수 없다.

예술품의 소속위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르토텍에서 미술품을 관여하는 이유는 아르토텍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 화랑, 예술인협회, 박물관협회등에서는 미술품에 관심있는 계층을 쉽게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이 계층에 대한 신뢰도도 높을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술감상, 판단능력이 있다. 또 예술품대여는 전시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시효과면에서도 유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장품의 구성면에서도 공공미술관인 아르토텍보다 전문가들의 배려로 조직적으로 잘 처리되는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품대여서비스를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⁸⁾ 첫째, 바로 언급된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인력면에서 대출하는 기술적인 업무 처리방법이 실제로 도서관처럼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둘째, 갤러리나 박물관은 도서관처럼 모든 시민의 곁에 있는것이 아니고 거의 한정된 계층만을 이용자로 삼고있어 공공의 성격이 공공도서관에서처럼 넓게 인식되지 않고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박물관의 예술품대여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점은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미술품대여가 도서관의 봉사영역에 포함시켜져야하며, 또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증가추세이다.

세째, 아르토텍은 박물관이 해 내지 못하는 기능, 즉, 어느 일정기간동안 그림을 집에 걸어 놓고 생활속에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완해준다. 이점은 중세에서 종교미술품을 모든 대중(신도)에게 예배시간마다 감상하게끔 시작한 본래 미술품의 목

7) Dietze, Horst: op.cit., p.45.

8) Borsch-Supan, Helmut: Über die Forderung des Kunstverständnisses durch Kunstausleihe".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DBI. Berlin. 1982. p.11-19.

적과도 상충한다고도 볼 수 있다. 박물관의 기능은 국립도서관의 기능처럼 보존(Archive) 적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전시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소장품을 알린다. 박물관에서도 모든 예술품을 수집할 수는 없으며 또 소장품의 전시도 한정된 공간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전시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예술감상은 피상적일 수 밖에 없다.

넷째, 박물관에서는 아르토텍에서처럼 현대예술가의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작품을 구입하기 어렵다. 아르토텍에서는 작품을 구입할 때 공공도서관의 목적인 국민의 여가 선용이외에도 예술적감상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르토텍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중을 위한 수준이다.

4. 운영

아르토텍의 운영도 업무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공공도서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서, 정리, 보관, 이용등으로 대별 할 수 있다.

4.1 운영체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로 간주되었던 음악자료가 소장자료의 증가, 사회환경의 변화, 이용자요구의 다양화등으로 인하여 음악도서관(Musik Library)으로 독립되듯이 아르토텍의 운영 형태도 이와 비슷한 형성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르토텍은 아직까지는 음악도서관처럼 인식도가 높지는 않지만 요즘처럼 「장난감도서관」⁹⁾이란 새로운 용어가 생길 정도로 「도서관」의 개념이 보급화되고 있는데 「그림도서관」 「예술품도서관」도 하등 생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르토텍의 역사가 짧아서 그림대여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마다 그 운영형태가 달라서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운영방식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운영중인 아르토텍의 시스템을 소개하는것으로 대신한다.

① 백림의 아르토텍이나 그라포텍(Graphothek)¹⁰⁾은 Musik Library 처럼 본래 공공도서관에서 미술전반에 관한 도서와함께 예술품이 독립하여 행정상으로도 완전 독립형운영체제이다.

② 불란서 Grenoble 공공도서관 Bibliotheque de Grand'Place 나 영국 Greenwich 공공도서관의 예술품대여봉사는 도서관의 한 코너를 아르토텍으로 개조하여 도서관이용자에게 동시에 그림도 대여하는 운영체제, 즉 공공도서관의 활동영역에 포함시키는 부설형태이다.

③ ②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봉사에 속하나 독일 북부 Bremen 에서는 공공도서관망(Central system)을 구축하여 예술품대여는 중앙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술품종합목록까지도 배포하여 그 도시의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④ 독일 시멘스(Siemens)회사¹¹⁾에서는 사내에 도서실과 아르토텍을 병행하여 독립운영

9)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리다 김여사." —사람들—, 月刊朝鮮, 1985, 8월호.

10) Graphothek 은 그래픽만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아르토텍의 예술품이란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협의로 해석되고 있다.

11) Horst, Dietze, op.cit. p.26.

하고있다.

⑤ 독일 루르공업지대 Solingen¹²⁾ 소도시에서는 각 구청소재의 이동도서관의 운영방 침처럼 시(市)의 소관으로 그 도시의 예술인협회에다 아르토텍을 설치해서 대출, 판매까지도 실시하는 위탁운영형태이다.

⑥ 문헌의 “대여갤러리”처럼 “젊은예술가들의 광장”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아르토텍과같은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¹³⁾

⑦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예당(藝堂)¹⁴⁾처럼 개인이 그림대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미술작가와 미술애호인들을 예술적 차원에서 교류시킴과 동시에 그림대여를 통해 예술의 보급, 대중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도 있다.

여기서 제외된 박물관의 Art Lending Service는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예술품대여가 실시되지않아 삭제했다. 이렇듯 예술품의 대여가 도서관의 봉사영역에 포함되어가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4.2 소장품개발정책

공공도서관이 도서및 기타 매체를 수집,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존하며, 그것들로 하여금 일반공중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장서개발정책이 필요하듯이 아르토텍을 운영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이용자의 수준에 맞추어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수집, 유지하고 또 이용자의 흥미, 예술적 잠재능력을 개발하기위해 소장예술품을 증가시키는 작업이다. 아르토텍의 수집대상물로서는 오리지날 Drawing, Reproduction, 실크스크린, 진흙품, 목판, 동판부식, 서예, 자기, 등이며 여기에 조각품, 포스터, 사진작품, 어린이와 청소년작품¹⁵⁾, 슬라이드, 예술 필름과 비데오도 포함시키기도한다. 무조건적인 예술품수집은 고려되어야한다. 그들의 공간문제와 관련해서 크기, 또는 조각품의 경우 보관, 대출, 운반에 따르는 자료의 견고성등이 고려되어야한다. 작품수집은 정기적인 예산에 의존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소장품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아르토텍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들의 작품기증이다. 호소력있는 아르토텍에 대한 PR의 노력은 어느 도서관유형의 장서개발에서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흥미있는 소장품증가의 한 방법으로 1978년 백림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그래픽”¹⁶⁾이란 주제로 미술경시대회를 개최하여 170음모자로부터 402종의 그래픽을 수집했다. 음모작품중 전문미술평론가의 심사로 70종의 그래픽을 아르토텍의 소장품으로 결정한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르토텍의 PR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아르토텍의 작품선정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감정적이거나 혹은 인간적인 유대관계에

12) Horst, Dietze; op.cit. p.30.

13) Pietzsch, Eva: “Die Münchner Bild-Leihstelle und die die Gesellschaft der Freunde junger Kunst”.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DBI. Berlin. 1982. p.82.

14) “그림이 좋아서 그림 빌려줍니다.” 가정朝鮮, 1985년 4월호. p.135—137.

15) Dietze, Horst, op.cit. p.34.

16) Dietze, Horst: “Zehn Jahre Artotek Berlin”.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DBI. Berlin. 1982. p.72.

지우쳐서는 안된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대예술의 보급, 대중화와 감상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있으므로 작품선정은 그들의 원칙, 예를들면 “1945년부터 현대까지”등 시대적인 조류에 조화를 이루어 현대예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등, 대로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백림의 경우 작품선정위원회의 체계적인 예술품구입정책에 힘입어 현재 독일과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쟁후 40년대부터 수집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어느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명 젊은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아르토텍의 소장품구성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원칙을 세워야 한다. 박물관의 컬렉션에서는 예술품 그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어느 예술가의 작품이든 그 예술가에대한 관심은 한정되어있다. 예술품을 감상하는것도 박물관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반면 아르토텍의 이용자는 생활속에서 오랜동안 예술품을 감상하기때문에 더욱 더 소장품구성에 배려를 요한다. 진부한 말 같지만 예술품은반은 몇권의 도서를 대출해 가는것과는 달라 이용자로서도 예술품을 빌려갈때는 상당한 관심을 지나서 실제로 예술품을 감상하는 차원이기때문에 단시간, 몇분만 보고 지나치는 화랑이나 박물관보다는 어떤면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한다.

수집대상물들은 집중적으로는 50~60년대 아르토텍의 시작과 함께 수집되기때문에 실제로 오래된 작품도다는 신인의 작품이 많다. 가끔 오래된 작품이나 또는 고가의 소장품이 있기는 하나 예외이기때문에 아르토텍의 임무는 현대 또는 생존예술가의 작품을 대어한다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르토텍에서는 꼭 예술품만을 대어해주는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소장작품이외에도 예술의 이해를 돕기위해 소규모의 도서실을 운영한다. 참고도서, 단행본, 예술잡지, 전시회 카타로그, 각종미술가에대한 자료등을 수집, 보관, 이용케 한다. 이용자의 요구와 사서의 권고에 따라 대출 미술품에 관련된 자료도 동시 대출되도록 배려한다. 근래에 와서는 복합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그림을 빌려가는 이용자는 그 그림과 관련된 슬라이드, 또는 더 나아가서는 문학작품과 음반, 그리고 그 시대의 악보와 지휘자에 대한 자료까지도 완벽하게 이용하는 이용자도 생기고 있다. 또 Köln의 경우 예술작품과 시(詩)를 동시에 취급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예외이다.¹⁷⁾

예술품대여서비스를 시작하는 공공도서관이나 아르토텍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976년 약 200점의 그래픽으로 개소식을 가진 Grenoble의 Grand'Place의 아르토텍코너를 소개해본다.¹⁸⁾ 개소식을 알리기위한 준비기간은 1년정도 필요했고 이 준비기간에 처리된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다.

—수집소장품과 관련하여 그래픽과 현대미술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도서, 수많은 전시회카타로그, 정기간행물을 종합적으로 수집.

17) Calov, Gudrun: "Kunst und Kunstbucherei in öffentlichen Bibliotheken" Bibliothekswissenschaft. Musikbibliothek. Soziale Bibliotheksarbeit. Hermann Wassner 60, Geburtstag. Harrasowitz. Wiesbaden. p.363—379.

18) Lecomte, Eliane: "Die Leihgalerie vom Grand'Place de Grenoble".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Hrsg. von Horst Dietze. DBI. Berlin. 1982. p.96.

—Bibliothèque nationale 과 파리의 갤러리에 있는 현대그라픽에 대한 소장사항을 조사했고

—그라픽에 대한 카타로그를 취급, 출판하는 불란서와 외국출판사들이 서신을 띄워 입수 가능한 카타로그를 수집했다. 또 이 방법은 동시에 작품수집과 관련되서 실무자와 예술가와의 유대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이미 도서관에 소장된 기존의 작품을 프레임에 넣기전에 사진을 찍어두고, 작품원부예의 기록, 목록, 프레임, 또 Grand'Place 공공도서관의 전산화에 따라 컴퓨터입력을 완료시켰다.

—이 기간동안 3회의 전시회를 준비했다.

작품선정위원회

도서로 말하자면 자료의 선택권은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대학도서관은 교수에게, 공공도서관은 담당사서에게, 전문도서관은 연구원이 상주한 경우 연구원에게, 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료선택을 외부 전문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등 다양하다. 아르토텍에 있어서 소장품구성과 자료선정의 중요성은 이미 시사되었을듯이 이의 책임을 맡는 선정위원회의 구성멤버의 선정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는 갤러리인, 박물관장, 미술사학자, 미술애호가, 수집가, 미술평론가, 예술가, 미술인협회대리인, 지역사회의 향토문화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인사와 아르토텍책임자(사서)이다. 가끔 회원간의 의견충돌도 신중히 검토해야하며 가능한 한 심사위원들은 지역을 초월한 타지역의 전문가에 대한 의뢰도 고려해야한다.

특히 예술품의 선택시에는 사서가 함께 참석을 해야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용자가 작품선택의 관점에대해 질문을 할 경우 그 작품이 선정된 이유, 배경등을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 대출과정에서도 사서의 작품에대한 질적인 평가외에도 이용자들이 모르는 비전문적인 정보도 때에따라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용자도 작품선정시 참여하는것은 거의 예외에 속한다. 독일 Erlangen 에서는 작품선정에 이용자들의 충고, 요구사항들을 반영시키기위해 개소식전에 “예술품을 무료로”라는 테마로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높은 참가율을 보인 사례도 있다. 또 Wuppertal¹⁹⁾에서는 작품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전에 예비선정작품리스트를 이용자에게 배포한 결과 900명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 결과 80점의 작품중에서 48점의 작품이 이용자의 요구대로 아르토텍에서 구입하게 됐다.

4.3 정리

아르토텍에서는 그들 소장작품의 효과적인 이용을위해 어떠한 검색수단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가? 도서관의 이용자는 그들이 원하는 도서를 자료의 검색수단인 여러가지 목록을 통해서 찾게된다. 개가제시스템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원하는 자료를 직접 서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아르토텍에서 “여기에 무슨 그림들이 있는지 보고싶은데요?” 하는 식의 질문을 이용자가 하게된다면 사서가 반응은 어떠할까? 그 이외에도 아르토텍의 이

19) Dietze, Horst, Bilderleien..... op.cit., p.36.

용자는 그가 작품의 화가 이름을 설명 알고 있더라도 실제 이름과 원하는 작품과는 차이가 있어 도서에서와같이 저자명(공저자, 편자, 역자, 단체명), 주제명, 분류번호, 서명등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는것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즉 미술가의 성명, 작품의 제목은 현대예술에서는 예술품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않는다. 그림의 모양, 색(흑백이나 총천연색)의 힌트조차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서에서와같이 자료의 총 색인인 목록은 어느형태를 불구하고 아트토크에서는 소장품에 접근하는데 임시변통의 수단 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용자가 원하는 작품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작품과 접하는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선택시 그림에 대한 역사적인, 미학적인, 또는 예술사적인 관점에서보다도 실지로 색의 조화나 실제 그림이 나타내는 “그 무엇”을 바탕으로, 환언하면, 작품을 본 후에 대출할것을 결정한다. 그리하여 아트토크는 될수있는 한 작품을 실물 그대로를 보여주어야하지만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작품을 이용자에게 보여준다고해도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이용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²⁰⁾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시도적으로 20점 정도의 작품에 해설을 붙이는것도 시도해볼만하다.

위탁판매역할을하는 아트토크에서는 직접 작품을 전시하는것이 가능하고 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출이나 판매가 되지않은 작품은 의뢰인(대리인)이 최수해 가기때문이다. 그러나 아트토크이 작품들을 그들의 재산으로 여기고 또 일시적인 대리인 역할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체계있게 수집할때 위의 단순한 전시방법은 적당하지 않다. 작품들을 손상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슬라이드나 그림목록, 그리고 분류목록과 슬라이드를 겸한 목록이 있다. 스웨덴의 Tyreso-Bollmora 아트토크에서는 아래와같은 정리방법을 개발했다.²¹⁾ 32개의 슬라이드가 담긴 상자말에 전기장치를 설치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서로 겹쳐있는 슬라이드가 하나씩 옆으로 밀려가면서 비춘다. 각 슬라이드에 대한 정보 즉 예술가의 성명, 작품제목은 슬라이드프레임에 붙어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트토크의 소장작품을 단시간내에 볼 수 있어 이용자의 작품선택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사서의 업무도 단축시켜준다. 그러나 한가지 단점은 각 작품에대한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있고 또 동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흔히 사용되는 그림목록인 카드식목록과 책자형목록의 절충식은 A4크기의 가계식목록(loose-leaf catalog)인데 예술가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목록에는 간단한 예술가의 약력과 전시회의 평가, 청구번호, 그림의 크기, 기법, 양식등이 기재되며 그림의 천연색사진을 붙여둔다. 이 가계식목록의 장점은 카드식과 책자형목록의 장점만을 절충한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목록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림목록으로는 그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카드의 삽입이 가능하고, 슬라이드와 비교할때 이용자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Bremen²²⁾에서는 도서목록카드에 목록을 작성해서 그 도서관의 장서목록에 합병시

20)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2.

21) Dietze, Horst. Bilderleien…… op.cit., p.40.

22) Dietze, Horst. Bildereien…… op.cit., p.41.

켰다. 예술가의 성명을 기본표목으로 배열된 카드에는 예술가의 약력, 작품명, 기법, 양식, 전시회의 출품사항, 그림의 크기등이 기록됐다. 동일 예술인의 작품은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연대미상의 작품은 작품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또 연대와 제목미상인 그림들은 마지막에 배열하여 전체 분류목록의 “예술” 분야에 삽입시켜 그 도서관의 중앙목록에도 수록된다. 이와같이 순수도서목록에만 의존하는데서는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적어도 4점의 작품까지는 직접 사서가 이용자에게 보여주어야한다.

도서에서 말하는 분류목록(분류번호나 주제명)은 슬라이드가 별도로 비치되어있을때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어떤 테마에 관한 그림이라든지, 어떤양식, 기법을 이용한 작품등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체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법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기때문에 대출도 가능해야 한다. 분류법에만 의존한 작품의 대출은 이용자에게 실망을 주기때문에 환등기가 없을경우 적어도 쿠키²³⁾나 일반광선에 슬라이드를 비추어 보고 그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한다.

Grenoble²⁴⁾에서는 모든 그래픽은 유리 와 알미늄으로 프레임되어 대출되는데 작품의 뒷면에 등록번호, 화가의 성명, 작품명, 기법, 창작년도, 작품의 순위번호등이 기재된 복사된 목록카드가 부착되어 도서의 레이블 역할을 한다.

4.4 보관

그림의 보관은 도서에서처럼 공간과 서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안전한 예술품의 보관방법도 중요하지만 보관 그 자체가 이용을 통한 예술품의 보급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감안할때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르토택을 운영하면 그림의 양이 프레임보다 많아진다. 모든 그림을 대출완료상태로 준비하자면 각양, 각색, 크기의 프레임을 필요로한다. 그림에 맞는 프레임을 맞추려면 경비도 문제지만 시간과 예술적 감각도 필요하다. 얼마나 많은 종류, 크기, 색의 프레임을 필요로 하는 가는 아르토택의 규모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통일된 프레임의 크기(60×80, 80×100)는 언제나 적합하지않다. 또 연로한 이용자는 운반이 쉽고 실내공간을 작게 차지하는 작은 프레임을 선호하는 경향이있다. 전 소장량의 그림이 프레임될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 프레임에 보존되어 벽에 걸거나 또는 서가에 세워두는 방법도 이용자의 흥미를 돋구어줄 뿐만 아니라 대출업무도 단축시킨다.²⁵⁾

많은 그림들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기위한, 그림에 맞게 짜 맞춘 투명한 포장지에 넣어 횡적으로 선반, 서가, 설합등에 포개놓는 방법은 그림이 구겨지지 않고 먼지등 어떠한 접촉에도 상하지 않아 이용자가 작품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회전목마식으로 뒷면의 튼튼한 축(軸)에 그림을 얹어 수직으로 세워서 중앙의 축대에 걸어 한장씩

23) 날개의 슬라이드를 전지를 이용해서 크기 그대로 볼수있는 단순한 장치이다.

24) Lecomte, Eliane, op.cit., p.97.

25) Dietze, Horst: “Die Graphothek Berlin”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Hrsg. von Horst Dietze. DBI. Berlin. 1982. p.52.

부라우징한다(round about). 모든 그림들을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고의 공간문제가 따르며, 수시로 새로운 작품이 입수될 때마다 전 소장품을 옮기는 것에 대비해서 대출빈도가 낮은 그림은 서고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보관하여 미래 소장량이 증가될때를 고려하여 공간의 여유를 항상 확보유지해야한다.

예술품의 보관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세밀한 관리 또한 작품의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예술품대여는 작품에 크고 작은 손상을 가져오는 것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감수해야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빛의 강도, 먼지, 습기, 과다한 방, 온도의 변화등 주변환경에서 오는 작품의 손상은 예술품들이 포장, 운반시에 오는 것보다 훨씬 크다. 주도면밀한 보관, 포장, 운반등을 통해서 예술품의 손상을 줄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또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주의사항은 거의 무의미하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술품의 손상은 피할 수 없으므로 현 보존상태를 가능한 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술품복고상(Restauratation)에게 위탁하여 손상이 적을때 미리 복고시킨다. 특히 오리지날이거나 꼭 하나의 유니카(Unique)인 예술품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출·반납때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며 작품의 수명에 따라서 언젠가는 대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술품은 간단한 도서와는 달리 작품운반문제를 완전히 이용자에게만 맡길 수 없으므로 책임자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견고한 손잡이가 달리고 습기가 차단된 두꺼운 종이의 넓은 상자나, 들고갈 수 있는 주머니등이 있다. 백림에서는 그림을 반드시 이용자안내규정에 명시된 대로 꼭 정해진 포장케이스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크기가 작은(30×60)그림을 두개 동시에 대출할 때는 밑에 견고한 판이 부착된 플라스틱주머니에 그림들끼리 접촉되지 않도록 사이에 별도의 종이 삽입된 특수주머니를 개발했다. 또 이러한 주머니나 케이스에는 아르토텍의 PR 효과를 위해서 글자나 그림을 디자인해 넣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 운반수단은 예술품대여를 일반대중에게 선전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작품보관에 사용되는 프레임, 운반용 포장주머니, 상자, 또 정리작업에 필요한 사진, 슬리아드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공공도서관이나 아르토텍의 예산에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한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출을 위해서 타지역과의 협동을 하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다.

전시회공간

예술품은 형태적인 실체여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방법은 이용자가 그림을 전시회나 그 이외의 방법을 통하여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르토텍의 공간은 그의 목적과 발전과정, 소장품 열람방식, 소장작품의 규모, 기준서가의 공간, 대출의 빈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결정된다. 소장품을 모두 전시해서 이용자의 요구대로 대출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가는 특히 대출양에 따라 다르다. 아르토텍의 공간과 대출양과는 비례한다는 사실은 여러곳의 경험을 통해 증명됐다.²⁶⁾ Köln의 경우 소장작품의 90%가 정기적으로 대출되고 있다. 여기서 공간이라함은 전시공간을 뜻하

26)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4.

며 이 공간의 빛의 강도, 통풍시설등은 보관에 필요한 조치들이다. 전시용 공간외에도 보관공간과 대출공간은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대출업무에 편리를 가져다 준다.

보험, 손해배상

소장품은 화재, 수해, 강도, 손상에 대해 아트텍의 가능범위내에서 보험에 가입된다. 이용자의 책임한계성에 대해서는 보험체결시 명확하게 해두어야한다. 우리나라 기존의 그림대여회사나 그림은행의 운영상 크게 지적되었던 점은 대여된 작품이 훼손 분실됐을 경우 그 배상기준이었다. 더구나 작품소유를 부동산투기란 이색적인 풍토아래 이 기준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있다. 아직도 신용사회가 토착화되지못한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선의의 지역사회서비스인 미술품대여에 커다란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있다.

아트텍의 작품대출은 거의 보험을 조건부로 한다. 아트텍과 이용자간에는 대출과 동시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며 보험료는 300~500원선이다. 대출연장시에 보험료는 부가되며, 이 보험료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예술품의 안전을 위해서다. 이용자는 작품의 분실이나 손상에대한 책임을 진다. 보험회사에서는 이용자들에 의한 작품의 분실은 실제로 책임을 기피하고 있고, 또 만일 손해배상을 한다면 특별조건에만 보상해준다. 그러나 실제로 Grenoble의 Bibliotheque Grand'Place에서는 일년반동안 모든 이용자들이 원상태대로 작품을 반환했고,²⁷⁾ 3년동안 10점의 작품분실과 3점의 손상이 있었을뿐이다. 백림에서는 35,000점의 대출에서 18작품의 분실과 36점의 손상을 기록했다.²⁸⁾ 이렇듯 작품의 분실이나 손상대한 실무자들의 우려는 불필요함이 증명됐다.

4.5 이용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지속적인 유지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되는것은 소장자료의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주민들에 대한 봉사기능이며 아트텍의 존재타당성도 이와 부합됨을 반복할 여지가 없다. 특정이용자그룹이 아닌 여러 이용자그룹을 대상으로하는 아트텍의 이용은 공공도서관의 그것과 원칙적으로 같으나 소장품의 특징상 이용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트텍에 따라서 이용안내규정은 대출을 전후로 대출증의 발급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대출증이나 청구용지 뒷면에 이용규정이 명시되어 있기도하다. 공공도서관 부설형 예술품대여서비스는 일반도서관 안내규정에 부수적으로 첨가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아트텍의 열람과 대출기간은 도서관 부설체제경우 소속도서관의 규정에 따르지만 예술품에 한해서만은 대출기간이 2~3개월이다. 독립운영체제 아트텍의 열람은 공공도서관과 비슷하다. 일주일 1회정도는 근로자이용자를 위해서 관공서와 회사의 퇴근시간보다 늦게까지 개관하는것이 서비스의 특징이다. 대출기간은 1~6개월이며 보통은 2~3개월이다. 대기리스트에 이용자가 없으면 원칙상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나 아트텍이 지나치게 예술품의 PR 장소라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되겠지만 예술품보급의 목적이 예술품 구매의 촉진

27) Lecomte, Eliane, op.cit., p.98

28)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0.

제 역할도 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또 겨우 몇몇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아르토텍에서 업무량의 과다, 그 외에도 미리 주문해둔 작품을 가져가지 않는 사례등으로인해 무제한 대출 연장봉사는 고려되고있다.

이용자 거주지역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이용안내서에 명시되고 있으나 거주지 문제는 작품의 운반과 관련이 있어 개개이용자의 여건에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아르토텍의 지역주민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용한다. 만약 대출과 반납에 문제가 생길경우—예를 들어 대출된 작품을 전시회를 위해서 회수해야할 할 경우—, 이용자를 가까운 곳에 쉽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타지역의 이용자를 제외시키는 경향이있다.

대출에는 개인과 단체대출이 있다. Grenoble 에서는 회원제제도를 실시하며 개인은 연간 10F. 단체이용자에게는 100F의 회비가 있고 단체대출에는 한번에 10~20점의 작품을 3달마다 교체시켜 빌릴 수 있다. 또 단체가 학교나 다른 도서관, 공공기관일때는 무료로 봉사한다.

4.5.1 이용자그룹과 그 이용분석

아르토텍의 이용그룹도 공공도서관에서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구별한다. 여기서는 아동, 노동자, 신체장애자의 순으로 사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특히 작품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이용자그룹을 social library work 측면에서 간단히 다룬다.

아동을 위한 아르토텍은 스칸디나비아에 있고 백림에 있었던 아동아르토텍은 “예술은 어린이 방으로”의 표어아래 1971년 시작했으나 폐관됐다.²⁹⁾ 아동을 위한 아르토텍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선택시에는 실제 작품을 감상해야할 아동이 그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동반자인 부모의 기호에 따라 작품을 선택하게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 결과적으로 아동아르토텍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된 대표적인 예이다. 코펜하겐에서는 아동을 위한 포스타대여실을 도서관에서 따로 설치를 했다.

아르토텍의 설립당시 “예술포소유를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현대예술의 새로운 대중을 흡수하기 위해서…”의 목적을 감안할때 이것은 실제 설립동기와 이용자계층간의 이용율에서 볼때 상반된다.³⁰⁾ 생활수준에 따라 아르토텍의 이용빈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때 전체 이용자의 겨우 2%가 노동자층으로 나타났지만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자(그들의 부인)들은 설문지에 그들이 노동자라고 대답하지 않은 예가 많을뿐더러 또 노동자층에서는 설문지에 응답하는것조차도 너무 어렵거나, 이해를 못하며 또는 응답자체가 부담감을 주어 거절하는등의 예를 생각하면 니 2%의 수치는 불확실하다.

신체장애자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봉사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오고 있다. 병원의 환자, 양노인의 노인에 대한 도서관 확대봉사의 실시, 맹인과 농아의 필요에 따

29) Borsch-Supan, Helmat: op.cit., p.59.

30)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1.

른 특수자료의 제공등 여러가지 형태의 자료도 개발되어 왔다. 아르토텍의 순회전시프로그램은 기업종사자, 노동자, 학생들에게 예술품에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품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연로한 이용자나 신체부자유자들이 박물관이나 화랑을 방문할 기회는 없다. 스웨덴에서 양노원의 환자에게 hearing newspaper³¹⁾로서 social library work 측면에서 봉사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았다.³²⁾ 아르토텍에서도 앞으로 이 방면에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령과 아르토텍의 이용과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이 구체적 예는 비슷한 대출량을 보인 코펜하겐의 Gladxaxe와 백림의 아르토텍이 1970/72과 1979년 두차례에 걸쳐 보여준 아래 그림³³⁾.

지 역	Berlin	Gladxaxe
연령 \ 년도	1970/72	1979
16-19 세	5.17%	1.08%
20-24 세	19.7 %	5.24%
25-29 세	30.5 %	17.73%
30-34 세	19.2 %	27.7 %
35-39 세	7.5 %	23.3 %
40-44 세	8.7 %	13 %
45-49 세	3.2 %	5.5 %
50-54 세	2.17%	3 %
55-59 세	1.37%	1.34%
60-64 세	1.6 %	0.65%
65-69 세	0.8 %	0.75%

에서처럼 30대에서 이용율이 현저하게 높다. 즉 30대까지는 예술품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지출층이고, 40~50대에서는 이용율이 감소하는것은 이용자 자신이 예술품을 개인소유로 구입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 아무리 예술품을 애호한다고 해도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협소, 새로운 것에 접하는 도전성, 예술품의 개인소장, 신체적 부자유등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젊은층과 노인층의 이용율의 저조는 당연하다.

Greater Manchester, 네델란드, Bremen에서도 사회과학적인 통계분석이 아르토텍의

- 31) 이것을 사서들이 일주일간의 신문중에서 사실이나 그의 중요한, 흥미있는 내용을 카세트에 녹음해서 환자들에게 들려주는 읽는 신문이 아니라 듣는 신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전파매체의 보급으로 시간이 없어 책을 읽을 수 없는 젊은층을 위해 조□을 하면서 귀에 쫓고 들을 수 있는 hearing book의 개발도 동기는 다르지만 도서관의 고유양식을 떠난 새로운 독서방법이란점에서 흥미롭다.
- 32) Lesle, Lutz: "Bilden, Helfen, Heilen". Bibliothekswissenschaft. Musikbibliothek. Soziale Bibliotheksarbeit. Hermann Wassner zum 60. Geburtstag. Harrasowitz. Wiesbaden. 1982. p.359.
- 33)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1.

이용에 관하여 실시되었고³⁴⁾ 이와 비슷한 결과도 백림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중년층에서는 남자이용자가 여자보다 두배이상이었는데 이 결과는 남자들이 가정에서 실내장식을 책임맡고있는 여자들의 심부름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인했다고 분석되었고 또 여자는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해석됐다. 독신자들의 이용율이 기혼자들보다 두배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용자 10명중 4명이 교육과정에 있으며 전체 이용자의 2/3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층이었다. 노동자는 전체의 2%이며 전체 이용자의 80%가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다. 이점은 대출시 주차시설의 중요성을 재 강조하고있다.

아르토텍의 이용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는 아직까지 희박하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대출방법, 통계방법, 작품의 크기, 각 아르토텍에서 실행되는 업무의 구분방법의 다양화, 언어의 장벽등 여러가지 장애요소가 통계자료미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국가 내지는 국제적인 경험의 교환도 아직 미개척단계이다. 더구나 아르토텍에 대한 전문서적이 거의없을 뿐만아니라 만약 있다해도 꼭 한정된 지역만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고 또 그러한 문헌을 입수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공공도서관협의회나 국제차원의 Musik Library Association 처럼 아르토텍협의회를 설립해서 포괄적으로 이에대한 인식과 자기발전을 꾀해야 한다.

아래는 아르토텍의 이용효과³⁵⁾를 조사한 흥미있는 결과이다.

- 38%의 이용자들이 아르토텍을 이용한 결과 미술품, 전시회, 화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고
- 20%는 여러번 예술품을 구입하고 싶은 자극을 받았고
- 48%는 실제로 예술품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 80%의 이용자는 방문객들로부터 대출해온 작품에 대해 대화의 주제로 질문을 받았으며
- 90%의 이용자는 의도적으로 예술품에 대한 대화를 유도해 나갔으며
- 85%의 이용자는 자녀에게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정보까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 단지 20%의 이용자는 작품, 예술가, 작품의 시대적 감각이나 소재구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되었다.

위 치

공공도서관이 교육, 오락, 예술의 질적향상및 일반 정보를 위한 활력소로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민들과 밀접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르토텍의 설립때에 그 지역의 인구밀도및 종류, 일반적인 경제및 교육적위치, 그 지역사회의 성장가능성, 자연적인 지리적경계, 거주자의 가옥소유정도, 학교, 대학, 쇼핑센타의 위치, 다른 도서관이나 공공기관과의 거리, 대중교통수단, 주차시설등 여러가지 여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부설형인 Greenwich³⁶⁾는 그 도시자체가 몇년 전부터 인구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도서관이 경제적 발전성이 없는 지역(洞)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이용자감소율을 나

34)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1.

35)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4.

36) Glencross, Alan, op.cit. p.90.

타내고있다. 이러한 요인은 예술감상능력을 개발해야하는 교육적, 문화적인 목적을 사명으로하는 초창기 아르토텍이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4.5.2 이용자연구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존재타당성은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봉사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같은 본질적인 역할은 변함이 없으나 주어진 상황, 기관의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은 그에 적합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아르토텍의 횡적(horizontal)이 아닌 종적(vertical)인 이용자유형에 맞는 봉사를 위해서는 이용자조사연구를 통하여 이용자 지향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것이 책임자로서의 의무다. 특히 이것이 중요한것은 아르토텍이 걸음마단계에 있기때문에 이용자와 아르토텍간의 feedback 시스템을 통해 발전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채널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성과를 다짐하는것이다. 이용자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유형이나 목표가 서로 다를지라도 소장자료(정보)와 이용자를 정확하게 연결시키는데 있다.³⁷⁾

백립에서는 이용자연구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1974년 과거 아르토텍이용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이용자카테고리에서 탈피한 제반의 이유를 분석했다.³⁸⁾ 또 아르토텍의 소개문을 배포해서 이용자들끼리의 모임에 초대를 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아르토텍이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이용자들의 책임이며 또한 특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이용자와 경영자간의 정보교환, 그리고 아르토텍에 대한 이용자 자신의 요구를 모르는 이용자에게 그들의 요구를 표현할 기회를 주는데 있었다.³⁹⁾ 그러나 경영자의 노력, 기대와는 반대로 겨우 20명정도만이 참석하였다.⁴⁰⁾ 이러한 반응은 아르토텍이 하나의 문화(행사)기관으로서의 인식이 덜 되어 있고 또 전문인 협의회의 회원처럼 소속감에대한 의식이 아직 희박함을 뜻한다. 설문지나 이용자모임의 결과 아르토텍의 운영, 조직에 관한 보안점으로서의 주차시설의 긴박성, 작품의 운반문제, 2개월의 대출기간이 너무 짧다는 견해, 이용자 자신의 실내공간문제등이 표면화되었다. 노인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봉사는 타봉사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발상도 있었다. 대출기간은 미술품이 개인소유가 아닌 이상 다른 이용자를 위해 반납되어야하는것은 공공생활의 질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꼭 이용자가 특정작품을 원할때에는 예술가와의 타협안도 아르토텍에서 마련할 수 있다.

이용자연구결과 실제 작품자체에 관한 이용자의 요구, 즉 작품의 양식, 기법, 주제에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⁴¹⁾ 이용자는 어느정도 표준화된 작품의 규격을 원했으며, 흙색보다는 천연색을 선호했다. 예술품의 소재에 대해서는 풍경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초상화나 인물을 중심으로한 소재, 그 외에는 뚜렷한 대상이 없는 상상적, 추상적인 묘

37) Exan, Andy: "Getting to know the user better" Aslib proceeding. vol.30. 10/11(1978). p.352.

38) 배포된 432 설문지중 165(38.2%)의 회신이 있었다.

39) Calov, Gudrun. op.cit. p.,369.

40)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4.

41)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5.

사, 정치와경제적 의미가 포함된 주제, 마지막으로 사실적인 묘사의 순서였다. 특징인의 작품에 대한 기호도는 작품수집이 일괄적으로 되지않아 의도적으로 문제제시에서 삭제시켰다. 현대예술의 경향에 대한 이용자들의 견해는 사실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초현실주의의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물론 바로 언급된 이용자들의 요구는 경영책임자의 작품선정이나 소장품개발정책에 완전히 반영시키기는 쉽지않다. 책임자는 소수의 적극적인 이용자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대중인 수동적인 침묵의 이용자에게도 한층 더 많은 배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4.6 홍보정책

도서관 PR 필요성은 도서관이 어떤 사회의 한 장치(apparatus)라기보다는 이 장치가 민주주의사회에서 수행해야할 문화, 교육, 정치적인 사명의식이 무엇인가를 찾는데서 더 확실해진다.⁴²⁾ 이 점을 Karl-Heinz Weimann⁴³⁾은 “도서관과 정보센터는 사회에서 출발하고, 사회를 형성하고(form),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도서관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체임을 그 PR의 필연성에서도 재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이 필요한 책이나 정보를 위하여 먼저 공공도서관보다 서점을 찾는것은 아직도 도서관의 PR이 미비한 탓일까? Harrison을 도서관 PR의 목적을 “……to ensure that the maximum number of people know of the existence of our libraries, where they are located, what they contain, and how they can help users to acquire more information and generally become more literate and better educated members of the community”⁴⁴⁾로 정의했다. 특히 초창기에 있는 예술품대여서비스의 PR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책을위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은것처럼 아르토텍의 이용자도 예술품 감상이나 대출을 위해 여기를 찾지않는다. 구미 여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미술품의 무료대여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의 확대봉사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도서관의 이미지쇄신을 위해서도 PR은 중요하다. 아르토텍의 봉사는 작품의 무료, 유료대여 또는 예술품구매의 촉진제역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래의 PR방법이나 활동영역에 적극 권장, 추진, 참여해서 그들의 봉사의 범위를 확장시켜 더 넓은 이용자층의 확보와 그들의 예술적 감상능력을 개발하는데 보완해준다.

—신문, 잡지, 라디오—TV의 광고.

—포스터(대중교통수단, 지하철).

—전시회의 주최

a. 고정전시회

b. 이동전시회 : 이용자들이 미술품을 감상, 대여하기위해 공공도서관, 아르토텍을 찾

42) Selbman, Sybylle: Zur Öffentlichkeitsarbeits wissenschaftlicher Bibliotheken(Bibliothekspraxis), Bd 15). Verl. Dokumentation. Munchen. 1975. p.17.

43) Weimann, Karl-Heinz: Die Niedersaschische Landesbibliothek Hannover. Kleine Fuhrer durch ihre Geschichte, Bestande und Einrichtungen. 3. neu bearb. Aufl., Hannover. 1972. p.9.

44) Harrisor, K.C.: Public Relation for Libraries. Deutsch. London. 1973. p.9.

지않는다. 그래서 미술품들이 이용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개최지로서는 병원, 노인회관, 청소년문화센터, 학교, 유치원등이다.

—갤러리, 박물관, 전시회의 방문을 조직.

—작품의 작업과정을 아르토텍이나 광장에서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예술관련주제의 강연회, 토론회의 주최 : 문헌에서는 정기적인 강연회를 국내 저명강사를 모셔 현대예술 뿐만아니라 예술전반에 걸친 토론회도 진행한다. 아테리에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이용자와 예술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하고있다.⁴⁵⁾

—도서관의 자동차문고와 같은 Mobil아르토텍의 운명도 적극적인 홍보방법이다. 벨지움에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다.

—유인물배포 : 공공도서관, 각 단체의 문화센터, 극장, 상가, 병원대기실등 인파가 모인 곳이 적당하다.

—장기대여⁴⁶⁾ : 아동이용자가 많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중복된 업무를 피하고 보다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 아르토텍이 학교도서관에 미술품을 장기대출하고있다. 영국의 Leicestershire Collection⁴⁷⁾은 1948년부터 예술감상능력을 “less from the talk than from environment”라는 표어아래 그들의 소장품을 1년동안 학교에 공공도서관, 박물관, 갤러리등에 장기대여했다. 이러한 추세와 보조를 맞추어 독일 Schlewig-Holstein 지방⁴⁸⁾에서는 몇년사이에 학교갤러리의 설치가 권고사항으로 채택되어 “예술을 학교에서”라는 목적으로 아동들을 예술감각을 개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다.

백림은⁴⁹⁾ 영국 Leicestershire-Collection 이 여기서 소개된것은 계기로 아르토텍이 설립된 후 지금은 그들의 소장품을 1972년부터 세계 각국의 피테문화원에 장기대여를 해주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한다. 또 1975년 35명 예술가의 107그래픽을 이스라엘, 유고슬라비아, 핀란드와 서로 작품을 교환해서 전시해서 국가간의 외교에서도 아르토텍의 저력을 과시했다.

‘아르토텍을 이용하게된 첫 동기는 PR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이용자연구에서도 나타났다.⁵⁰⁾ 전체 이용자의 40%이상이 친지나 매스콤(신문, 라디오, TV—방송)을 통해 예술품대여서비스를 받았다. 아르토텍의 PR 은 딱딱한 감을 주지말고 자연스럽게 이용자의 예술잠재능력을 자극시킬것이며 그들의 목적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첫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번 이용자가 되면 영구이용자가 된다. 이용자에 따라서는 한 아르토텍의 작품을 거의 소화시켰을 경우 타아르토텍의 작품까지도 대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으며, 이용자의 단계를 넘어 스스로 수집가가 되어가기도 한다.

45) Pietzsch, Eva: op.cit. p.82.

46)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7.

47) Glencross, Alan, op.cit.,p.89.

48)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8.

49)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3.

50) Dietze, Horst. Zehn Jahre…… op.cit., p.71

4.7 인력

산업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3대 요건⁵¹⁾인 재정(finance), 기술(technologie), 인력(manpower component)중에서도 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정보시스템에서는 인력비가 차지하는 비율만 보더라도 인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인력비와 타비용과의 비율은 50 : 50 전후일수도 있지만 심지어 전체 재정의 80%까지도 차지하는 수도 있다. 아르토텍에서의 담당사서의 중요성은 비용면에서라기보다는 그들의 다각적인 업무내용에 찾을 수 있다. 특히 소장품개발을 정기예산에 보다 예술가들의 이해와 그들의 작품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서들의 능력과 자질은 어느 도서관유형에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예술품은 도서관에서 비도서자료의 극히 일부분으로만 간주되어 왔었고 또 소장사항 상태 그대로만 머물러있어서 간혹 이용이 될 경우에 이 작품을 책임지고 정리, 보관하고 이용케할 담당전문직은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또 현재 그림대여서비스가 독립형 또는 공공도서관부설형태로 실시되고 있어도 Musik Librarian 전문인 교육과정에서처럼 Art Librarian 은 그 개념의 문제조차 대두되지 않은 형편이다. 일반사서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서비스영역을 벗어나 변화를 감행함으로써 예술품대여봉사가 실시되고있지만 장기적인 대책도 서서히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Art Librarian 이 Musik Librarian 에 비해 잘 알려지지않은것은 음악이나 미술이라는 그 예술 자체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 보다도 미술대여라는 서비스가 아직도 일반인에게 공공도서관의 활동범위로 인식되지않은 소속감의 애매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아르토텍의 PR 은 더욱 중요하며, 더불어 사서의 활동범위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아르토텍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대, 현대미술사에 대한 지식이며 추가적으로 판화나 판화의 역사, 기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 서예, 도자기등에대한 다각적인 관심, 그 외 일반적인 미술품의 질에대한 감각(sense)등을 들 수 있다. 모든 이러한 지식들은 아르토텍의 역사가 짧아 특히 설립때, 자료의 구입, 정리, 전시회의 조직등에 필요로한다.

아르토텍은 적극적이고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진, 창조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사서를 필요로 한다. 보통 도서관의 업무에 습관이 된 routine화된 사서는 운영에 도움이 안된다. 대외적인 홍보,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요구 파악, 예술가와의 접촉이외에도 비이용자(non-user), 잠재력이용자(potential user)의 예술감각을 일깨워주고, 자극, 개발시키고 권장하는것등은 아르토텍의 성공여부에 큰 몫을 차지한다. Art Librarian 의 전문교육과정이 있더라도 바로 언급된 이러한 자질은 교육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점도 있다.

아르토텍의 소장품구성과 대출량, 대출빈도에 따라 사서의 팀도 구성된다. 백림의 경우 담당사서와 준사서 각각 한명씩이 책임을 지며 연간 대출량은 8,000작품이어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대출량이 많은 시간에는 보조사서가 도와주는 방법도 택하고 있다.

51) Jackson, E.B; Jackson, R.L: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Dowden etc. Stroudsburg. 1978. p.105.

선진국에서도 Art Librarian이란 개념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소하다. 지금까지 필자의 수집자료에 Art Librarian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문헌이 없어 독일의 Musik Librarian의 그것과 비교해봄으로서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까 생각된다⁵²⁾. Musik Librarian은 3년의 정사서과정을 수료한 후에 6개월간의 음악에 관계되는 2차교육과정을 마친다. 물론 정규과정 3년동안의 이수과목에서도 가능한 한 음악관계자료중심으로 참고봉사, 자료선택, 목록등을 관심갖는것은 당연하다. 6개월의 2차교육 외에도 Musik Librarian의 조건은 적어도 한종의 악기를 다룰줄 알아야 한다.

5. 결론

한쪽의 동양화, 산수화, 그래픽, 서예, 포스터등을 도서처럼 대출해서 생활속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아르토텍의 기능은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목적조항만을 장식했던 예술을 감상케하고, 고상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양을 쌓게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정신순화를 통한 사회정화를 이루는것이 실제로 어떻게 조직, 운영되는가를 구라파의 몇 예술품대여봉사를 중심으로 소개겸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아르토텍의 재정문제는 운영체제보다 그 재정형태도 다양해서 아르토텍이 봉사하는 지역주민사회의 문화행사기관 내지는 시·도간의 행정체제에도 관련이 있어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예술품대여서비스는 엄밀히 따져보면 공공도서관의 봉사영역에서 전혀 새로운 활동분야가 아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실행해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때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개척분야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예술품을 포함한 비도서자료의 존재에 대한 사서들은 아래의 이유로 인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서만이 공공도서관의 소장사항이어야 한다는 사서들의 보수적인 고정관념.

둘째, 공공도서관이 도서만으로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때 꼭 비도서 자료가 공공도서관에 소장사항으로 도서의 영역을 침범해야하는지?

셋째,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파매체의 다양성에따라 대두되는 시청각자료에 전통적인 독서인구를 빼앗긴다는 두려움.

넷째, 이러한 비도서자료가 자료로서 도서에 비해 사서에게 주는 업무의 복잡성등이다.

그러나 우리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이미지쇄신을 위해서는 거부반응보다는 이러한 자료들이 공공도서관을 위협하는 라이벌로서가 아니라 서로 공존해서 도서를 보좌하는 자료로서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럼으로서 더 많은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지역사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능한 한 모두 제공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서비스정신에 입각해서, 한 예로서 스웨덴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스키까지도 빌려준다, 근래 공공도서관의 봉사영역은 온라인 정보, 커뮤니티정보까지 확대되어가고있다. 우

52) Engler, Klaus: "Die Ausbildung zum Musikbibliothekar." Bibliothekswissenschaft. Musikbibliothek. Soziale Bibliotheksarbeit. Hermann Wassner zum 60. Geburtstag. Harrasowitz. Wiesbaden. 1982. p.249-261.

리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때에 예술품을 대여의 봉사물로 간주하는 것은 서비스의 혁신이라기 보다는 있었던 것을 다시 부활하는것일 따름이다. 아직까지도 도서관의 유형중에서 특히 공공도서관의 발전상이 불투명한 우리의 실정에 비하면 사치스러운 봉사라는 감이 없지도 않으나 음악자료에 대한 서비스의 발달과정(아직도 미비하지만)을 보거나 또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아르토텍의 발전도 결국 비판적인것만은 아니라고 다짐하고 싶다.

〈참고문헌〉

- 1) “그림이 좋아서 그림 빌려줍니다.” 가정朝鮮. 1985. 4월호. p.135
- 2) 도서관용어집. 한국도서관협회편. 서울. 1966
- 3)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리다김 여사. —사람들— 月刊朝鮮. 8월호.
- 4) 한국도서관기준. 기준분과위원회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 5) Borsch-Supan, Helmut: “Die Artothek Berlin” Über die Kunstleihe und Bildereien. Hrsg. von Horst Dietze. Deutsche Bibliotheksanstalt(DBI). Berlin. 1982. P 62—64
- 6) Borsch-Supan, Helmut: “Über die Forderung des Kunstverständnisses durch Kunstausleihe” Über die Kunstleihe und Bildereien. DBI. Berlin. 1982. P. 9—20
- 7) Calov, Gudrun: “Kunst und Kunstbuchereien in öffentlichen Bibliotheken” Bibliothekswissenschaft, Musikbibliotheken, Soziale Bibliotheksarbeit. Hermann Wassner 60. Geburtstag. Harrasowitz. Wiesbaden. 1982. P. 363—379
- 8) Dietze, Horst: “Bildereien. Entwicklung, Aufbau, Arbeitsweise”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Hrsg. von Horst Dietze. DBI. Berlin. 1982. P. 21—53
- 9) Dietze, Horst: “Die Graphothek Berlin”.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Hrsg. von Horst Dietze. DBI. Berlin. 1982. P. 54—56
- 10) Dietze, Horst: “Zehn Jahre Artothek Berlin”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Hrsg. von Horst Dietze. DBI. Berlin. 1982. P. 65—81
- 11) Exan, Andy: “Getting to know the user better”. Aslib Proceeding. Vol. 30. 10/11. (1978). P.
- 12) Engler, Klaus: “Die Ausbildung zum musikbibliothekar”. Bibliothekswissenschaft. Musikbibliothek. Soziale Bibliotheksarbeit. Hermann Wassner 60. Geburtstag. Harrasowitz. Wiesbaden. 1982. P 249—261
- 13) Glencross, Alan: “Pictures for the home-Der Bilderverleih in Greenwich”.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Hrsg. von Horst Dietze. DBI. Berlin. 1982. 86—91
- 14) Harrison, K.C.: Public Relation for libraries. Deutsch, London. 1973.
- 15) Jackson, E.B.; Jackson, R.C.: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Dowden etc. Stroudsborg. 1978
- 16) Lecomte, Eliane: Die Leihgalerie vom “Grand Place de Grenoble”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Hrsg. von Horst Dietze. DBI. Berlin. 1982. P. 92—104
- 17) Lesle, Lutz: “Bilden, Helfen, Heilen.” Bibliothekswissenschaft Musikbibliothek, Soziale Bibliotheksarbeit. Hermann Wassner 60. Geburtstag. Harrasowitz. Wiesbaden. 1982. 354—362
- 18) Pietzsch, Eva: “Die Münchner Bild-Leihstelle und die Gesellschaft der jungen Kunst.” Über Kunstleihe und Bildereien. Hrsg. von Horst Dietze. DBI Berlin. 1982. P. 82—85
- 19) Selbmann, Sybylle: Zur Öffentlichkeitsarbeit wissenschaftlicher Bibliotheken. (Bibliothekspraxis. Bd Bd.15). Verl. Dokumentation. München. 1975
- 20) Weimann, Karl-Heinz: Die niedersächsische Landesbibliothek Hannover. Kleiner Führer durch ihre Geschichte, Bestände und Einrichtungen. 3. neu bearb. Aufl., Hannover. 1972